제569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83. 10. 16 (1)

연중 제29주일

기도서 459 면 (C해)
제1독서 : 출 애 17,8—13
제2독서 : 디모 후 3,14—4,2
복 음 : 루 가 18,1—8

숲정이

발 행 천주교전주교구
편 집 홍 보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⑤ 0041 · 0042 · 0043

항구하게 기도하자

김 용 태 신부

오늘 복음의 말씀중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불의하고 불성실한 재판관은 헤로데 왕의 측근자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임명된 재판관인 것 같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임명된 판관은 나빴고, 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권력이나 배경 그리고 뇌물 없이는 원고나 피고는 절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재판관은 금지 혹은 처벌관으로서 백성들은 모두 도둑재판관이라는 별명을 지었던 것이다.(오늘날은 꼭두각시)

여기에 대조적으로 대립되어 등장하는 인물은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이다. 과부는 무력하고, 힘 없고, 배경 없는 가련한 인물의 상징이다. 돈도, 배경도, 권력도 없는 과부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공정한 판결을 바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것은 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는 재판관임을 알면서도 청하고 또 청하는 끈덕진 마음의 자세, 항구한 태도이다. 결국 악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과부의 애원을 들어주고야 만다. 하물며 선하신 하느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뜻은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의 효과를 믿지 않으려든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기도로 얻었던 것을 현대에는 과학 기술로써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 잘 알고 계시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또 어떤이는 기도하느라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그 시간에 일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신다. 오늘 제1독서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기도하기에 지친 모세가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은 비록 하느님께서 모세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당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 복음 말씀과 같이 나쁜 재판관도 과부의 애원을 들어주었는데, 선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겠다. 현재 나는 하느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 명예, 권력을 더 필요로 하는지? 권력, 돈, 명예에 더 마음을 두는 생활이라면 기도할 줄 모르거나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일 것이다. 기도할 줄 모르면 하느님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노송 주임신부)

굵은 베 옷을 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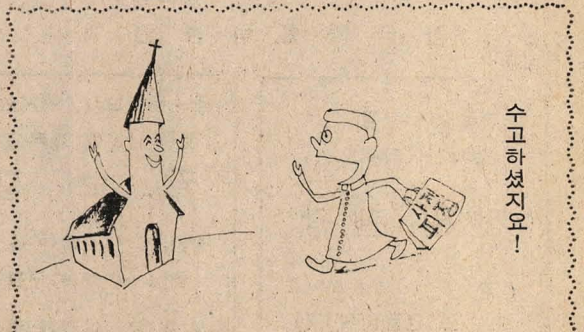
또 무고한 생명이 죽고 다쳤다. 그가 누구이든, 하느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 고개를 숙여 명복을 비는 것이다.

왜 이다지도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가. 제 손톱밑에 가시만 들어도 징징 울어대는 사람들이, 남의 생명에 대해서는 눈 질끈 감고 함부로 해대는 것은 모두가 제 잇속을 차리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그 잇속이 몇푼의 장삿속이 아니고 정치적인 다툼이 될 때에는 엄청난 희생을 부른다. 정권다툼이 부르는 살상과 보복만 보아도 그러하다. 총칼로 지배하는 말로가 그 총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인간들은 하루살이처럼 불 속에 뛰어들고 있다. 역사를 배워 거울로 삼는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왜 그러하는지 모르겠다,

80년대에 접어들며 이 땅에는 몇 차례의 슬픈 죽음들이 있었다. 광주사태가 그러하고 의령사건이 그러하다. 금년에는 또 KAL기 피격사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버마에서의 비보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는 슬기를 이미 가르쳤다. 구약의 역사나 전래적인 우리의 상장예절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항상 울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느님에게서 힘을 얻어야 한다. 악의 세력이 회개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사건에서는 거울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느님, 칼날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가슴을 녹여 주소서. 그리하여 들풀과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생명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배우게 하소서.

숲정이 산책



농협조합장 직선제 실시 100만 서명 운동

올바른 농협 만들기 운동은 농민과 도시 소비자와 함께 잘 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 **오늘날의 농걸·농민 문제는 전체 국민의 문제입니다.**

- 20여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90%선을 웃돌던 것이 81년은 43%, 82년은 54%로 떨어져 국민 식생활의 반을 외국사람들 눈치를 봐야하는 심각한 지경이 됐읍니다.
- 또한 희망없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밀려드는 매년 60만명이 넘는 이농의 물결은 도시의 주택난, 교통난, 취직난 등 도시문제를 계속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 적자영농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땅에 대한 애착을 잃고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비료·농약 사용량은 해마다 급증하여 땅은 죽어가고 농산물은 오염돼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읍니다.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 세계 4위)

□ **농업 협동조합은 무엇을 하는가?**

- 농민생활의 향상과 농업발전으로 국민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의 협동단결의 토대 위에 도시 소비자의 긴밀한 연대와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농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이 바로 **농협입니다.** 그런데 현 농협은 22년전에 만들어진 **「농협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조합장은 임명되고 사업과 운영은 하향적으로 되어,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나 도시소비자를 위해서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읍니다.
- 따라서 올바른 농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이 조합장을 직접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올바른 농협 만들기 운동은…**

- 식량증산, 식량자급 운동입니다.
- 농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운동입니다.
- 땅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명운동입니다.

농촌과 이 나라의 밝은 앞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1983. 9.

한 국 가 톨 릭 농 민 회

다시는 성당에 나가질 않겠다던 친구가…

매년 가을이 맘 때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 나에게 신앙인의 자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었던 친구였다.

그러니까 5년 전 J회사에 근무했을 때, 내 짝꿍이었던 그녀는 무척이나 예뻤고, 똑똑했었다. 특히 천주교 신자인 나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곧잘 천주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날 당혹케 했던 그녀. 난 그런 그녀가 싫지 않았고, 급기야 그녀는 천주교에 입교까지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신자들의 태도가 너무 삭막하고, 외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천주교리의 핵심이 사랑이라면서 전혀 사랑할줄도 모르고… 난 이런 식의 신앙이라면 믿지 않겠어. 다시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을거야, 날 찾지 마."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총알처럼 내뱉고서 성당문을 박차고 도망치듯 가버렸다. 순간적인 상황에 난 벙어리가 되었고… 차츰차츰 그녀의 예리한 눈을 미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부끄러웠다. 분명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나의 행동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 그녀는 영 만날 수 없었고 세월 속으로 조금씩 잊혀져가는 얼굴이 되었었는데… 그런 그녀를 만난 것이다. 그것도 바자회 행운권 추첨 현장에서. 생활에 찌든 흔적이 몸에 적당히 배어 있었고 그녀의 등엔 예쁜 사내녀석이 업혀있었다.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은 신기하기까지 했었다. 신랑이 천주교 신자이기에 다시 성당에 나오게 됐다면서 S성당에 나간댄다. 차 한 잔에 회포를 풀어몸직 한데 그녀는 바쁘다는 핑계로 총총히 사라져 가고, 난 편안한 마음을 갖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하느님께선 지난 날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이런 귀한 만남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내년이면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는다. 크고 작은 기념행사가 열릴테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선 행사만을 위한 행사에 그칠 것이고,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 입벌려서 백번 믿으시오 하는 것보다도 한 번의 좋은 표양을 보여줄 때, 적어도 외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빛을 환하게 비춰보자.

덕진본당 **최 인 순**(빗달리나)

방송안내 : 성가를 들으며—매일 저녁 10시~20분(일요일 제외) 이리 기독교 방송(1310KHz)

가을맞이 관광
(설악산·제주도)
전 일 관 광
☎ 6—6666~8
조(안토니오) 선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SS】 FASHION 전 주 특 약 점
버 킹 검 로가디스 소사이어티
위 크 엔 드 간 이 복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MAN
챌 린 저 주 니 어 복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②4451
주인 유 율리안나

□ 전주교구 신앙대회에 참석하셨던

교황 대사님의 감사 말씀

지난 9월 25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가졌던 전주교구 신앙대회에 참석하셨던 교황 대사님께서 주교님께 영명축일 축하 인사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오셨다.

본인은 전주교구를 방문했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저를 맞아 준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간부 여러분께와 환영해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관에서 가졌던 신앙대회와 교구 주보 선포식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열심히 참례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읍니다. 전주교구 7위 복자 주보께 전주교구의 영적성장과 앞으로의 선교활동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읍니다.

□ 평협, 임원 연수회 및 임시총회

—10월 29일(토) 오후 4시~30일(일) 오후 4시

교구 평협은 10월 마지막 주에 임원 연수회와 더불어 임시총회를 갖는다. 200주년을 맞는 평신도 상을 정립하며, 교구 평협의 내일을 기약해 보는 모임이다.

참가 자격은: ① 본당 사도회와, ② 교구 단위 사도직 단체 대표 2명씩과, ③ 그 부인들이다. 부부가 함께 공부하고 형제애를 다지는 특색이 있는 모임이다. 꼭 지켜야 할 일은 사도회나 교구단위 단체에서는 회장단이 반드시 1명씩 참가하는 일이고, 부부가 함께 참가하는 일이다.

□ 제 1 회 가나강좌 개최

어느 따스한 봄 날 예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 가나촌의 혼인(요한 2장)을 모범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절실한 이때 교구 차원에서 「가나 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 시: 83. 10. 22~11. 19 오후 7시~9시(매 토요일) **장 소**: 가톨릭 센타 3층
대 상: 미혼 남·녀(기혼자도 좋음) **수강료**: 3,000원
접 수: 10월 21일까지 교육국으로(⑤ 0041~3)
특 전: 본 강좌 이수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되고 혼인찰고가 면제됨(교구장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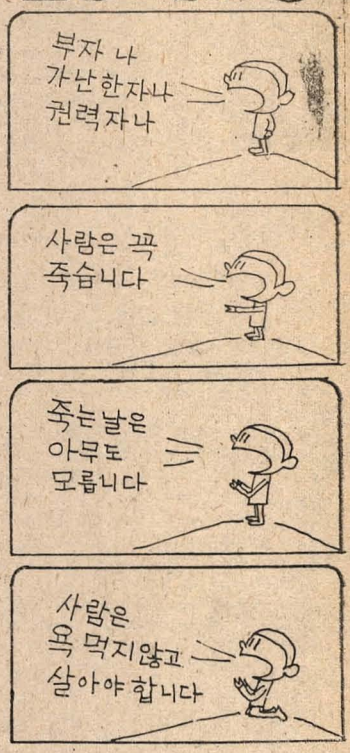
제 1 회 가나강좌 시간표

10월 22일(토): ① 혼인의 윤리—박 정일 주교
② 인공 유산과 생명의 결정권·생명의 신비(영화)—행복한 가정운동
29일(토): ③ 가정 의학—전북의대 안 득수 교수
④ 혼인의 의미와 목적—황 인규 신부
11월 5일(토): ⑤ 가정과 종교교육—김 보나 수녀, ⑥ 이 땅에 빛을(영화)
12일(토): ⑦ 성서의 결혼관—박 중신 신부
⑧ 빌링스에 의한 점액 관찰법—행복한 가정운동
19일(토): ⑨ 부부생활—M. E. 부부, 평가회 수료식—기념촬영

감 사! 바쁘신 중에도 축성식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실본당 신자 일동—

요십이 (532) 김병오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등)
친절 상담 봉사
염가 판매 조제
군산 태광 약국
구시장 오거리 ②1800
이 루도비꼬(원식)
최 데레사(순정)

※ 각종 가방 제조원
☆선물용·행사용·개업용☆
주산가방·유치원가방
※고주파 시설 완비※
노트표지·메뉴표·통장케스
전주PR사 ⑧ 0901
전주 서서학동(장승백이)
이 진 국(다마소)

알뜰주부 가스곤로

*영구적인 압전식 자동점화
*연결부품이 없어 설치비용이 없음
*조작이 간편하여 사용에 편리함
*이동이 간편하여 사용장소 이전 용이
*저렴한 연료비 안전도 100%
대중종합기기상사(주) 전주총판(성신상사)
전주시 중노송동 1가 253—38 ☎ ②6158
손 요 한(문) 이 아 녜 스(미례)

□마춤·대여□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폐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관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⑧ 6951
정 인 기(논지노)

미용과·양재과·한복과
수시모집, 최고의 시설,
기숙사 완비,
일류강사진 책임지도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학 원**
전주시 고사동(적십자사 앞)
☎ ② 4835·② 9826
원장: 김 베드로(정두)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 축! 견진 : 정읍본당(16일)
1. 지체 장애자를 위한 미사 : 16일 오후 2시, 장소—센타, 강사—성 라자로 수사님(광주 사랑의 선교회)
2. 사목방문 : 18일—원평, 19일—화산, 20일—한들(오전)·장수(오후)
3. 최 기식 신부 초청강연회 : 18일 오후 8시, 장소—중앙성당, 주제—나는 분명히 말한다
4. 제1회 가나강좌 개회 : 22일 오후 7시~9시, 3면 참조 바람
5. 가정법원 개원일 : 24일 오전, 장소—교구청
6. 200주년 기념 제4차 사목회의 : 25일, 장소—가톨릭 센타
7. 평협 임원 연수회 및 임시총회 : 29일 오후 4시~30일 오후 4시, 3면 참조 바람

□ 축! 영명 : 섭자가의 성바오로(19일)—김 준호 신부님

(중앙)

전화 ⑤1711~3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안 철 문
사도 회장 김 인 협

1. 초청강연회 : 18일 오후 8시, 강사—최기식 신부님, 제목—나는 분명히 말한다
2. 반회장 단합대회 : 27일, 장소—왕궁
3. 16일~22일 평일미사 독서 : 최인의 의탁 쁘레시디움
4. 성모회 : 공식미사 후 강당
5. 부활반 예비자 모집 : 개강—11월 2일 오전10시·오후 7시30분
6. 성전 신축 위한 묵주기도 : 11일까지 507,992단
7. 신축헌금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상규 20만원(추가10만원), 방계순 15만원(추가5만원), 박복수 6만원(추가4만원), 이북석 300만원(추가150만원, 정청 10만원(추가5만원), 이정숙 8만원(추가5만원), 김성자 20만원(추가5만원), 김순주 22만원(추가12만원), 이석례 17만원(추가7만원), 박완순 20만원(추가10만원), 경수자 10만원(추가5만원), 차판례 10만원(추가5만원), 홍영순 5만원(추가 3만원), 익명(10만원), 진영이(10만원), 이점순(5만원) 김덕자(10만원), 김종환(5만원), 이인순(4만원), 정우성(5천원), 김형택(2만원), 정현희(20만원), 김순자(1만5천원)

□ 지난주 봉헌금 : 910,617원 교무금 : 916,900원
특별봉헌 : 강정자(제의 1벌), 손문(5천원)

(노송동)

신 부 ⑥0969번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이 홍 재

1. 건축 재정분과 위원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애령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간부님들 참여
3. 구역모임 보고서 제출 :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10월분의 구역모임 보고서를 속히 제출하세요
4.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주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금년도 교무금 속히 완납합시다
5. 본당에 승용차 기증 : 익명의 신자분이 본당사목 전용으로 승용차를 기증하셨읍니다,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 435,000원

(멱진)

신부(3)2182
전화 수녀(72)1222
사무(72)6259

주임 신부 김 종 희
보좌 신부 정 양 현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 모임 : 반석회·청년연합회·성모회
2. 유아세례 : 오늘 오후 3시까지 접수, 4시 예절
3. 성지순례 : 26일 7시출발, 솔뫼·해미. 18일까지 신청
4. 가정미사 및 혼인규정 : ①개인 집에서의 미사는 원칙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선교와 친교상의 이유로만 봉헌함(미사의 존엄성 때문)
②혼인 대상자는 적어도 3주일전에 서류를 작성, 본당신부와 면담 ※첨부서류—영세증명서, 호적등본, 혼인신청서, 증인진술서 등(사무실)
③주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혼인미사를 삼가함
5. 주일학교 어린이 소풍 : 23일 오전 10시 출발
6. 예비자 교리반 모집 : 18일 개강(수녀님 지도), 〈화〉 오전 9시(할머니)·10시(주부), 〈금〉 오후8시(일반)
7. 청년연합회 단합대회 : 23일 금산사, 8시30분 출발

□ 지난주 봉헌금 : 396,380원 교무금 : 282,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신부님 피정 부산에서 4박5일간 무사히 마쳤읍니다
2. 중·고생 교리 : 매주일 오전 9시 학생미사 후, 지도—강기연 교육부장님
3. 봉헌금 미수 : 완납 바랍니다
4. 수녀원 신축헌금 : 김경순(5천원), 누계—6,163,500원
6. 200주년 기념부채 대금 : 속히 납부 바랍니다
7. 전교주일 : 23일 특별헌금 및 전교회에 가입하신 분들 회비 납부하시고 모두 가입해 주세요. 회비—1천원 이상, 어린이 전교회비—200원 이상
8. 금주전례 : 해설—이명례, 독서—①강기연 ②김성원
차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 460,6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할머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할머니회 1일피정 : 20일, 묵주·성가책·기도서·도시락
3. 어린이 소풍 : 23일, 도시락 필히 지참, 장소는 미정
4. 가정방문 : 25일부터 실시합니다. 새로 이사오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5. 차주전례 : 독서—①차상열 ②박경환

□ 지난주 봉헌금 : 294,776원 교무금 : 261,000원

(숲정이)

전 화③7366
수·유③9567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김 수 검

1.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미사시간 변경 : 저녁미사 19 : 00(18일부터)
3. 구역모임 : 18일—진북2동 9구·서신2구(19 : 30), 금암1구(19 : 30), 20일—중앙2구(14 : 00)·진북2동 6구(14 : 00)·진북2동 4구(19 : 30)·진북2동 1구(19 : 30) 21일—서신3구(19 : 30)
4. 누갈따 부녀회 새 임원선출 : 회장—이비비안나, 부회장—임안젤라, 총무—송세시리아, 서기—고젬마, 회계—반도미니카 ※구임원들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5. 금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정주복·이원길 기도—김남곤·강 삼
차주전례 : 해설—이철수, 독서—황현도·김남곤 기도—김경주·허옥순

□ 지난주 봉헌금 : 114,555원 교무금 : 378,500원

(전동)

신부 ⑥6208
전화 사무 ②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박 찬 길
사도 회장 이 종 두

1. 성화회 : 공식미사 후 2. 교리시움 : 오늘 오후 2시
3. 글라라 형제회 : 30일 오후 1시30분
4. 도서전시 :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5. 미사시간 변경 : 평일 저녁미사—7시, 주일 저녁미사—7시30분, 아침미사는 전과 동일
6. 예비자 교리안내 : 수·목—저녁미사 후(보좌신부), 금—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김 세시리아 수녀) 일—오전 11시(김세시리아 수녀)
7. 철야기도회 : 22일 밤 11시~새벽 5시 (영화 과달루페 성모마리아 상영)
8. 차주전례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①안득수 ②백종흠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최종만 ②김희진

□ 지난주 봉헌금 : 681,120원 교무금 : 444,0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황 희 상

1. 재경분과 위원들(부차장) 모임 : 오늘
2. 각 분과 내년도 예산 : 월말까지 사도회 제출 바람
3. 각 단체장 : 소속분과 위원장들에게 예산 제출 바람
4. 금번 영세자 : 각자 양심대로 교무금 신입 바람
5. 아치에스 행사 : 꾸리아에서는 대비해 주십시오
6. 예비신자 : 교리반에 등록을 바랍니다
7. 중·고학생들 토요일 학생미사에 참여토록 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218,820원 교무금 : 105,000원
김백술 감사헌금 : 10,000원

*인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7440